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400년 노예로 살던 운명, 저주,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 축복을 같이 얻게 된 것이다(구원)
먼저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개인과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통과시킨 사건이 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 지형적으로는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 사건을 겪게 하신다.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하고, 승리케 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복음 가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할 축복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겪는 인생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눅2:10-11).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골1:14), 그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인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일3:8),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요14:6, 9).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열심히 하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 복음을 못 깨닫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영적 문제까지 오는 것이다(마11:28, 12:44-45)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아픔, 고통, 실패, 그것이 나의 홍해)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어떤 홍해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세가지 잡으라.

1. 두려워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다(13절).

-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떤 문제가 다시 와도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 1)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멸망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이다(요10:28)**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히9:12), 영원히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이다(롬12:1-2). 우리의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창3:15),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다(고전15:57, 롬16:20)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영원한 길이 되시고(요14:6), 우리 앞에 모든 길과 문을 준비해놓으신 것이다(계3:8)
 - 2) 하나님은 성도가 가는 모든 인생을 보장하신 것이다(이것을 “여정”)**
 그 속에 내 정체성이 있다(언약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남은 자 램네프다). 그 속에 열가지 발판이 있다. 다섯가지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씨앗의 길이 있고,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 있고, 전도자로 보장된 축복이 있고, 매주일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는 강단의 축복이 있다.
 - 3) 홍해 앞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뒤에는 애굽의 군대까지 추격해오지만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이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을 만드는 순례자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의 여정이다.

2.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고 했다(14절).

-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속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 1) 평생 기도로 세가지 영적 싸움을 하라(이것을 “망대”).**
 그때 그리스도가 같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계17:14)
 부끄럽고 실패한 것은 회개하면서 싸우라(요일1:9).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우신다(사62:6-7)
 - ① 나 자신과 싸우라.** 나의 욕심과 죄의 욕망과 싸우라(약1:14-15, 고전15:31)
 나의 기준과 이론과 거기서 나오는 교만과 싸우라(고후10:4). 나의 숨은 상처와 연약함과도 싸우라(고후12:8-10)
 - ② 세상과 싸우라.**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보이는 유혹으로 인해 불신앙에 빠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라고 한 것이다(요일2:15-16)
 - ③ 사탄과 싸우라.** 나 자신과 세상을 통로로 삼아 사탄이 공격해 오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염려, 두려움, 갈등, 원망, 미움을 가져다주는 흑암과 싸우라(약4:7, 벰전5:7-9)
 - 2) 어느 정도로 싸우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로 싸우라.**
 그때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진다. 아픔이 아픔으로 안 느껴진다.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안 느껴진다.
 성령이 역사하니 나를 속이려고 했던 사단이 포기하고 항복을 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마12:28).
 히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 믿음의 싸움을 한 것이다(히11:38)
 - 3) 이때 모든 문제, 아픔, 사건은 전부 후대에까지 전달되는 축복이 되고, 영원한 응답, 작품, 유산이 된다.**

3.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15-16절, 이것을 “이정표”).

- 1) 모세에게 “어찌 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절망과 원망 가운데서 우는 모습이다. 심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눈물이다.
 믿음의 눈물, 감사의 눈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 외에는 끝내야 한다.
- 2) 이제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고 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지시하고 인도하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하신다(시119:105).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다.
 그때 이들을 두렵게 하던 바다는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는 역사가 나온다.
- 3)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신 결론이 무엇인가?**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그것이 전도와 선교).
 이 시대 끝없는 문제, 고통, 재앙이 계속 되어도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결론-절망스러운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 세가지 붙잡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찾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셨다(여정).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망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밖에 없도록 길을 열어주신다(이정표).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다. 평생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